

한 국 교 회 의 칼 빈 주 의 문 화 관

(장 로 교 회 중 심 으 로)

지 도 교 수 : 정 준 모

서 기 1988년 월 일

대 한 신 학 교

목 회 학 과

이 문 세

이 은 세 의 졸 업 논 문 을 인 존 함.

심 사 위 원 :

김 권 모

대 한 신 학 교

서 기 년 월 일

목 차 -

I. 서 론 -----	1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B. 연구의 범위와 구조	
II. 칼빈주의 문화관 -----	3
A. 문화에 대한 정의	
1. 문화의 의미	
2. 문화와 종교와의 관계	
B. 기독교와 문화와 관계	
1. 분리와 은둔	
2. 동화와 항복	
3. 변혁과 침투	
C. 칼빈주의 문화관	
1. 칼빈주의 정의	
2. 칼빈주의 근본원리	
3. 칼빈주의 문화관	
III. 한국의 장로교회 -----	22
A. 한국의 초기 시대적 상황	
B. 한국의 초기 종교적 상황	
C.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	
1. 초기 선교사들의 내한	
2.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	
D. 독노회 신조에 나타난 신학적 배경	
E.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적 배경	
IV. 결론 및 제언 -----	38
참 고 문 헌	

I. 서 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이 논문은 한국교회를 칼빈주의 문화관의 입장에서 평가 해 보면서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길을 겸손하게 제시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1884년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알렌(H. Allen)의 입국을 기점으로 본다면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가 한국에 전래된지도 벌써 1세기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여러각도와 측면에서 자기반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다. 마땅히 한국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안팎에서 일어나는 질책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장로교는 선교 초기부터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적 정통신학을 근간으로 하여왔고, "칼빈주의"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여 왔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장로교회의 분열이 있을 때마다 칼빈주의가 저들의 대명사인 양 교파 분열의 타당성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장로교의 원조인 개혁자 칼빈의 신학이 한국교회안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만큼이나 그의 신학적 토대위에 영위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평가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 접근에 있어서 신학적 고찰은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도 단편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본논문은 시도되었다.

B. 연구의 범위와 구조

여기서는 칼빈주의의 여러측면 가운데 특별히 문화관의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살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칼빈주의와 가장 소원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가장 무관심하게 버려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너무도 미비하였다는 것과 그나마 부분적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교회에 있어서 칼빈연구 그자체에 대한 관심마저도 지금까지 너무나 미비했다. 1) 고 볼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국내상황과 그리고 취급하는 주제자체가 "문화" 라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논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칼빈주의 문화관에 대한 정의와 그 강조점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도 개혁주의안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본서는 미국 칼빈대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하며 가르치신 Henry R. Van Til박사의 입장을 따르며 또한 고신대학 이근삼교수의 여러저서들에 많은 도움을 입었다.

그 둘째부분은 칼빈주의 문화란에 비추어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며 평가해 본 것이다. 여기서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다 취급하기에는 지면상, 시간상 역부족이었으므로, 보수장로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연구되어졌다.

1) 이상규 편저, 한국교회에서의 칼빈연구 100년 (경기도:개혁주의 신행 협회, 1985), p. 15.

II. 칼빈주의 문화관

A. 문화에 대한 정의

1. 문화의 의미

문화란 말은 수많은 이미지를 생각나게 한다. 1) 때로 흔히 "문화"라는 말을 "개화된다." (Having culture) 또는 "문명인이 된다." 는 말과 같이 협의로 사용한다. 이것은 보통 예술이나 인문과학을 뜻한다. 2) 그러나 문화에 대한 이런 협의의 개념은 종종 종교와 관련하여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3) 또한 그 문화의 범위와 내용, 넓이와 깊이를 결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본성의 예술적, 과학적, 사회적인 면의 발달이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일종의 편협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포괄성이 있어 4) 모든 사람이 포함 되어야 하며 인간 전 영역이 관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문화"라는 말을 인간자신을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계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일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 5)

우리는 여기서 문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6)

1) '문화' 의 의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참조. : Thamas st. earns Eliot,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culture (New York : Harcourt, Brqse, 1949)

2) Oliver R. Barclay, 세속속의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86) p.103

3) Robert E. Webber,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역 (서울:엠마오, 1986), p.12

첫째로 문화란 인간의 활동이다. 만일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문화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문화란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자연과 구별된다.

둘째로 문화란 피조된 사물의 질서와 관련된 행위이다. 자연없이는 문화라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문화란 인간의 행동이지만 피조된 사물의 질서안에서 표현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다.

셋째로 독립적 문화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문화행위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란 독립적일 수 없고 목적과 관계되어 있으며 가치의 세계와 관계하고 있으니 "모든 문화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7) 따라서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활동이나 땅을 정복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하는 인간의 형성된 능력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어떠한 이념을 묘사하는 일정한 생활양식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8)

더나아가 이 참된 문화의 부리는 옛새동안에 하나님의 사역하신 날들에 보다 앞서 창조하신 원재료들로 부터 세계를 경작하신 분, 곧 하나님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문화활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피조계를

4) 황영철,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전." 복음과 지성 83.3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83), p. 244.

5) Henry R.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이근삼역 (부산: 성암사, 1979) p. 32.

6) Robert E. Webber, op.cit., p.13.

7) John A. Hutchison, Faith and Reason, and Existence (New York, 1950), p, 209.

개발하여 모든 문화영역이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2. 문화와 종교와의 관계

인간활동을 이끌어 가는 궁극적 동기는 종교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그가 형성해 놓은 문화도 본질적으로 그가 경배하는 그 대상에 의해 지배되며 그 방향과 성격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종립적이란 의미와 순수한 문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도 적극적 또는 소극적 가치가 없는 문화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종교와 문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엘리엇(T.S.Eliot)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화는 종교와 관련되지 않고서 나타나거나 발전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한 민족의 문화' 라고 부르는 것과 '종교' 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인지 아닌지를 물어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문화는 말하자면 한 민족의 종교의 구체화이다."¹⁰⁾

폴틸리히(Paul Tillich)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종교는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기본관심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 형태의 총체이다

8) Henry R. Van Til, op. cit., p.37.

9) F.N.Nee, 문화의 성장과정, 최광석 역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0), p. 15.

10) T.S.Eliot, christianity and culture (N.y. : Harcourt, Brace co, 1949), pp.100-101.

11) P. Tillich, Theology of culture (London: Oxford Univ. press, 1948), p.92.

요약해서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11)

그러나 문화인류학자들이 범하는 본질적인 오류는 문화가 종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기독교는 부정하는 것이며 종교를 전적으로 자연주의화하는 것이다.12)

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적 믿음을 나타내는 방편이다. 물론 이것이 문화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바빙크 (J.H. Bavinck)는 말하기를 "문화의 모든 측면은 종교적 자료들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면서 문화의 2차적 측면을 주장했다. 13) 따라서 종교는 문화로 하여금 그 기능적 역할에 있어서의 질이나 성공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14)

결론적으로 종교와 문화는 구별해야 하지만 분리할 수 없다. 모든 문화는 종교에 의하여 활기를 띠게 되며, 생명을 가지게 된다. 참된 종교는 인간 존재의 전폭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앞에 설 수 있는 언약관계는 문화와 예배에서 나타난다.15)

12) Henry R. Van Til, op.cit., p.29

13) J.H. Barinck, The church Between the Temple and the Mosque
(Grand Rapids, Mich: Eerdmans nodate), p.21

14) 하도례, 종교와 문화와의 관계 (경기도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4),
p.124.

15) Henry R. Van Til, op.cit., p.55.

16) 기독교와 문화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려면 다음 문헌 참고.
Cailliet, The christian Approach to culture (Nashville:
Abingdon Cokesbury, 1953).

B.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다방면의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16) 이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의 혼란은 언제나 전 기독교 세대를 통해 하나의 영속적인 문제로 되어 왔던 것이다. 17) 이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동시에 두 세계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긴장에 근거하고 있다. 18)

리처드 니어버는 그의 명저인 "그리스도와 문화" 에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19) 그것을 여기에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첫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인데 이들은 기독교는 모든 문화와 완전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문화적 그리스도 (The Christ of Culture)로써, 여기서 그리스도가 인간문화사상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나타난다.

셋째, 문화위에 얹힌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인데, 이것은 은혜는 자연위에 얹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와 역설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the Transmutation of Culture)라고 하여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유용한 범주들이긴 하나, 각 범주간의 명백한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조금 혼잡스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기 상

17)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 문화, 김재중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3), p. 10.

18) Robert E. Webber, op.cit., p.77

19) H. Richard Niebuhr, op.cit., pp.48-51.

당이 다른 양상들을 포함할 수 있는 세가지 폭넓은 범주로만 나누어 생각해보자.

1. 분리와 은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필요성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의 반립에 근거한다.²⁰⁾ 이 두왕국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동시에 두 왕국에 거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 문화(counter culture)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²¹⁾ 따라서, 이세상의 술래자이고 위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서의 교회는 이 세상의 목표나 즐거움, 부에 대해 그 어떤 애착이라도 하나님나라를 위해서는 부인해야만 한다고²²⁾ 주장한다.

중세기에서 이런 실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중세기의 수도원 규정 이라든가 소중파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적 문화를 지향하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고 거기서 나와 스스로 갈라서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모델이다. 또한 16세기 재세례파에서도 이 분리현상을 볼 수 있다.²³⁾ 이들은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증거하기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세상은 육체를 따르고 신자들을 성령을 쫓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재세례파에 의해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 냈는데 그후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명멸되었던 것이다.²⁴⁾

20) Robert E. Webber, op.cit., p.27

21) ibid., p.79.

22) 이 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른 글을 보려면, William Stringfellow An Ethic for christians and other Aliens in a Strange world (waco: word, 1973) 을 참고하라.

23) 다양한 모습의 재세례파의 모습과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그 이후 17세기의 경건주의자들과 19세기 부흥주의자들 그리고 20세기의 근본주의자들이 이와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25)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는 문화에 대한 관심없이도 영에 따라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모두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와 은둔의 태도는 분명히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

2. 동화와 항복

동화 (Assimilation)란 우리가 자신의 주위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며, 항복 (Capitulation)은 적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회 사에는 비기독교적인 주위환경에 동화하고 그 결과 당시의 비기독교적 시대 정신에 항복 한 그리스도인들의 예로 가득차 있다.27)

분리주의자들이 두 세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반면 이 동일시하는 자들은 이 대립을 불편해 하고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28) 즉, 문제의 양

참고하라.

George H. Williqms, The Radical Reformation (Philadel-
pho. Westmisister, 1962); William R.Estep, The AnaBaptist
Story (Grand Ropids: Eerdmons, 1975)

24) Robert E. Webber, op.cit., p.100.

25) J.M. Botteau, 기독교와 문화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82),p.11.

26) Ibid., p.13.

27) Ibid.

면들 다 인정하고, 이 양면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해결해 보려고 한다.

중세기 로마 카톨릭 교황, 18세기의 프랑스와 영국의 이신론 (Deism), 19세기의 윤리적 자유주의, 20세기 사회복음운동, 이 모든 것들이 반 기독교적 세력에 동화하고 행복한 예들이다.29)

이상에 기술한 대부분의 부류들은 세상에 대한 "낙관주의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30) 이들에게 있어서 죄와 지옥으로 부터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이다. 그들은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여전히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런 집단들은 이미 근본적으로 주위문화의 비기독교적 시대정신에 행복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불신과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동화와 행복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31) 현대의 종교적 자유주의자가 죄의 실재와 그 파괴적 잠재력을 부정하면서 인간의 문화적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 부분별보다 더 악하며, 신에 대한 모독이다.32)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모든 형태의 불신과 세속적 휴머니즘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28) Robert E. Webber, op. cit., p.111

29) J.M. Batteau, op. cit., p.14.

30) Ibid.

31) Ibid p.15.

32) Henry R. Von Til, op. cit., p.83.

3. 변혁과 침투

변혁 (Transformation)이란 어떤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침투 (penetration)란 보다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두 세계에 동시에 살되, 분리주의자나 동화주의자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인간본성의 타락과 그 타락이 문화면에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그 각자의 문화와 사회안에 있는 인간을 변혁시킨다는 것이다.33)

존. 칼빈은 마틴.루터이후의 유럽에서의 종교 개혁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루터가 이신득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의 성경적 가르침을 재발견 했다면, 칼빈은 전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통치권 (God's Sovereignty over the World)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재발견했다. 이리하여 칼빈은 종교 개혁운동이 사회와 문화의 모든 것을 변혁시키고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원했다.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정부에 대해 왕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요구했던 이유이다.34)

변혁과 침투의 또 다른 예는 19세기 말엽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Abraham Kuyper)이다. 그는 모든 사상과 모든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위대한 사명으로 교회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35) 이렇게해서 네덜란드는 기독교적 행동에 따라 사회

33) H. Richard Niebuhr. op. cit., p.50

34) J.M. Batteau, op. cit., p.17

35) Ibid., p. 18.

의 모든 부면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신교회로 축복을 받았다. 개혁신교회는 모든 생활을 예수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는 위대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36)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메세지를 갖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 변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에 변혁과 침투의 태도가 옳다고 사려된다.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그는 각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모든 문화를 비추이고 그것들을 변혁시키기를 일항하신다.

C. 칼빈주의 문화관

1. 칼빈주의 정의

칼빈주의는 주로 신관과 신의 인간에 대한 관계를 특별히 취급한 포괄적 신학체계를 말한다.37)

이 체계의 신학적 명칭은 "칼빈주의"인데, 이것은 칼빈이 이 체계를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좁은 의미에서 칼빈주의는 역사적으로 루터파, 재세례파, 소기노파의 교리와 구별하여 개혁신주의 신조에 동의한 신교의 교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왔다.38) 때로는 참으로 성경적 예정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로 불리워졌다. 39) 카이퍼 (A. kuyper)교수는 칼빈주의란 말이 프랑스나 헝거리같은 천주교 세력이 우세한 나라에서는 수요가 적은 신교도를 비방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임을 상기 시킨다.40)

36) Ibid., p. 19

칼빈주의 강조점은 성경에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느니라." (롬11:36) 고 했는데, 이것은 칼빈주의 근본원리를 말해주며 또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교리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언제나 그 사상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간직하는 노력을 기도하면서 계속한다. 41) 워필드 (B.B. Warfield) 박사는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며 그가 영광중에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앞에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됨을 느끼며 또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치적으로 받아주심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칼빈주의자는 생의 모든 영역, 즉 지적, 도덕적, 영적영역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중요적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42)

칼빈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을 첫째 원리로 삼고 있다. 43) 따라서 성경에 가르친 중심 교리에 합당한 무게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안내자이시며,

37)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고신대출판부, 1976), p. 84.

38) Henry R. Van Til, op.cit., p.5

39) Ibid., p.58

40) Abraham Kuyper, Calvinism (Grand Rapids, 1943), pp.12,13

41) 이근삼, op. cit., p.85.

42) Ibid.

43) Henry R. Van Til, op. cit., p.60

무오류의 성경은 사람을 모든 진리와 손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믿는 칼빈주의자는 그의 모든 생활과 그 영역에서 성경의 지도를 받는다.44)

그리하여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구원의 공덕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음 45) 을 고백하는 전체 포괄적인 신의 계획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뿐이다.

2. 칼빈주의 근본원리 (강조점)

칼빈주의 전통의 어떤 강조점이나 근본원리를 말할 때 이 전통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대전통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칼빈주의 전통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첫번째 특징 "하나님 중심" (theo Centric) 사상이다. 어떤의미에서 이것은 모든 기독교에서 진리이다. 하지만 펠라기우스파나 알미니안주의에 반하여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의 구속 (redemption)에 주도적 역할을 취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46) 또한 그 어떤 복음주의에도 반대하여 칼빈주의자는 인간자신의 경험 아닌 하나님께 온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에게는 신론 (the doctrine of God)이 교리중의 교리이며 유일만 교리라고 하는 것이다.47)

44) 이근삼, op. cit., p.85

45) B.B.Warfield, 구원의 계획, 박종철역 (부산:새시대문학사, 1972), p. 116.

46) 이근삼외,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 (서울: 엠마오, 1986), p.10

47) Ibid., p. 11.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의 생활 전부를 움직이는 기본원리는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또 다른 하나의 칼빈주의의 기본원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God's Absolute Sovereignty) 사상이다.

이는 우주관의 기본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주와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술어이다. 46) 이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입법자이시며 자연계와 도덕계와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지배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칼빈주의자는 인간의 책임이나 결정을 부인하고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그 강조점을 두는 것은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창조적 능력과 그의 자율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49)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에 계신다. 만물위에 뛰어난 절대주권은 그의 독점적인 권한이다. 50)

칼빈은 이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를 교회와 국가의 영역에도 적용시켰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중 "주께서 통치하신다." 는 원리에 제외되는 영역은 없다고 했다. 51) 때때로 우리는 그의 우주적인 주권은 주장하면서도 특별하고 구체적인 주권은 회피하려는 경향⁵²⁾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은 칼빈주의자들이 생활하는 대기이며, 문화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생활환경이다. 53)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고백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취급하며, 그 하나님의 집중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은 칼빈주의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준다. 깊이에 있어서는 만물이

48)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op. cit., p.91

49) Henry R. van Til, op. cit., pp. 64-65

50) Simon Kistemaker, 칼빈주의, 김정호역(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94.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며, 넓이에 있어서 그의 통치는 전체적이라는 우주적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은 우주적 차원을 가진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전체 인간을 전체우주와 함께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함을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원리로 하여 전체계를 구성하는 칼빈주의는 신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학, 과학, 예술등 인생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체계이다. 54) 이 사상체계는 칼빈주의자의 세계관이 되었고 인생관이 되었다. 55) 그러므로 칼빈주의자의 궁극적 관심은 개인과 그의 구원을 초월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능가하고, 오직 그 관심과 소망은 국가와문화 자연과 우주의 넓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다. 56)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생관, 세계관 즉 시공계를 초월하는 하나님나라의 신학 곧 이것이 칼빈주의 신학의 대설계이다. 57)

51) Ibid., pp.95-96.

52) John Murrey,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1985)
p.84

53) Henry R. Van Til. op. cit., p.67.

54) 이근삼, 칼빈주의 op. cit., p.93.

55) Simon Kistemaker, op.cit., p.93.

56) 이근삼의 칼빈주의 강조점과 특징, op. cit., p.24.

57) Ibid., p. 27.

3. 칼빈주의 문화관

칼빈주의 문화관을 다루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문화적 기초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이 문화적 기초는 먼저 창조구조속에 있음을 본다. 58)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조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거주를 위해 마련된 세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는 구조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주 자신의 지와 인격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환영이라든가 또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는 영적인것들과 본질적으로 대립된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들 59)을 거부한다. 60) 더우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에덴동산에 있게 되어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창조에서 유익을 받을수 있고 그 창조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문화의 또 다른 기초는 언약의 구조속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실 때 벌써 창조 구조속에다 언약구조를 더하신 것이다. 61) 그것은 하나님이 사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사귀을 가지신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은 먼저 그가 창조의 주인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귀을 가지기 우함이다. 62)

그 임무를 성취하는 언약의 관리직은 하나님과의 사귀이 성장이다. 63)

58)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op.cit., p.190

59) 특히 힌두교와 불교가 그렇다.

60) J.M. Botteau op. cit.,

따라서 문화적 사명 (cultural Mandate)이라고 하는 명령은 축복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과 같이 문화적 사명도 하나님과의 사귄과 하나님의 총애의 표징인 것이다.

창세기에는 문화의 확고한 기초가 창조와 언약의 구조속에 놓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죄로 말미암아 발달된 문화에 대한 성경적 비판이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가인계에서의 죄의 급속한 발전이 묘사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연 영역에서의 문화의 진보를 위한 발명의 은사라는 일반은총의 작용이 나타난다.64) 그분만 아니라 가인계의 후손이 이런 은혜의 은사를 어떻게 남용하여, 오히려 세계에 악의 번영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65)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교만한 통일된 문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세우고자 하는66) 반역의 방향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이 죄가 문화에 미친 영향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그 문화는 참된 목적,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며 그의 전체적인 안목을 상실하고 그 결과 그의 문화는 단편화되고 길을 잃고 말았다.

61)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op. cit., pp.190,191.

62) Ibid.

63) Ibid.

64) Geerhardus Vos, 성경신학, 이승구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62.

그러나 죄가 인간의 의무를 철폐하거나 문화활동의 충동을 파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도 그대로 남아 있다.67) 창조세계에 있어서 땅은 아직도 인간의 거주지와 일터이다. 그리고 또한 인간 존재를 위한 법칙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 땅을 경작하는 그 법이 철회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했다.68)

그러나 피조물은 공허한 것이며, 이제 썩어짐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죄의 상태에 있는 문화는 줄기에서 끊어진 꽃나무 가지와 같다고 할수 있다. 69)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그의 문화창작에서 완전한 낙원의 조화에 이르지 못하고 다만 죄의 부패된 의식으로 중계된 문화를 반영할 따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적 변혁은 마지막 아담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둔다. 그리스도는 언약과 창조의 구조를 새롭게 함으로써 문화의 기초를 변혁시킨다.70)

먼저 하나님의 아담과 더불어 에덴동산에서 세운 언약적 사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71)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며, 심지어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게 되어 다시 언약적 사귀를 가지게 되었다.

65) Ibid.

66) 안영복, 구약요람(서울: 성광문화사, 1980), p. 73.

67) Henry R. Van Til, op. cit., p.76.

68) Ibid., p. 77

69) Ibid., p.78

70)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op. cit., pp. 193-194.

71) Ibid.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창조구조를 새롭게 함으로써 문화의 기초를 변혁시키신다. 72)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들을 중생시킬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땅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시므로 만물이 그 발아래 복종하며 만물을 마지막 아담으로써 총만케 하신다. (엡4:10, 1:23).

끝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에서 문화를 새롭게 하신다. 73) 여기서 우리는 그의 나라의 진행을 인식해야 한다. 그 나라의 세력은 초림시에 이미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므로 그의 나라는 아직 총만케 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바로 이 중간기에 살고 있으며,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생활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문화적 구현을 가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현체로서 교회는 그 나라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종말론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중간시대의 문화관은 강하게 종말론적이 되어야 하며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문화활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74) 따라서 이 시기에 속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복음전파와 더불어 문화적 사명완수에도 진력하여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다. 75) 결론적으로 문화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참된 인간화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다. 76) 중생되는 것

72) Ibid., p.197.

73) Ibid., p.197.

74) 변종길, "성경적 문화관과 우리의 태도", 교회문제연구소 제4집 (부산: 고신대학출판부, 1985), p. 219.

75)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p.359.

76)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op. cit., p.200.

은 죄인이며 그의 생활의 전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안에서의 새로운 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 문화속의 누룩이 되게 한다. 소금처럼 저들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 저들의 새로워진 이해의 빛은 저희 주변의 인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실성 또는 생산성을 그 문화에 있어서 초래케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화활동은 철저하게 신앙중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77)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문화적 노력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에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손에 일을 주신이가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77) 변종길, op. cit., p.219.

III. 한국의 장로교회

A. 한국의 초기 시대적 상황

기독교가 이땅에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한 때는 구한국의 망국을 전후한 혼란이었고 정치적으로는 한국은 열강세력의 각축장이었다.

19세기 후반 13세의고종의 즉위로 1) 보수적인 흥선 대원군의 쇄국적 세도정치 시작되었다. 그후 10년만에 민비에게 추출당하여 민시 일족에 의하여 정치가 이어졌다.

무능한 한국정부는 일부의 강압에 못이겨 강화수호조약(1876)을 맺게 되었고 그 이후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1882년 5월에는 미국과 한.미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한.미통상수호조약에는 양국의 문화인이 양국을 왕래하면서 학문이나 언어예술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학습하고 또 피차 도와서 우호를 돈독히한다.

2) 는 귀절이 유일한 문화관계에 대한 언급이었으므로 사실상 포교를 허락한 것은 아니었으나 금교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당시로서의 귀중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1883년 11월 영국 및 독일과 수교를 맺을 때 서양인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그 지정된 거주지에서 저들의 신봉하는 종교의 예식집행을 가능케하는 글을 실었다.3)

1) 1863년

2) 양국 생도왕래 학습언어 문예사업등사 , 피비균선관조 , 이곽육조-증보문 비교 권 128,

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106.

조선의 문호개방, 그것이 조선내에서의 신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선교를 가능하게 했고, 기독교에 대한 금교령은 1889년 까지 존속했으나, 사실상은 사문화되었음을 공인하게 되었다. 4)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의 현실을 길고도 험준한 과정을 거쳤고 1898년에 이르러 신교 자유가 공포되었는데 이때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한 지 싯로 15년 뒤였다.

B. 한국의 초기 종교적 상황

근대 한국은 종교적으로 심한 허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 역사를 통해 한 때 전성했던 선이나 불교 및 유교의 정신적 자원이 고갈하고 그 형식과 명분만으로 무게없는 빈껍데기만 되풀이 하던 근대는 종교적 신안과 정신 생활의 전례없는 진공기라고 할 수 있었다.5) 하멜(Hendrik Hamel)은 한국인이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들은 종교에서는 전혀 논란하지 않는다."고 평한 일이있다. 6) 그러나 한국인이 비 종교적이라는 말은 한국인의 역사를 모르고 한 소리이다. 영적 실재에 대한 의식이 한국역사의 기저에서 맥박처럼 흘러왔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은 새크라멘탈 (Sacramental)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초월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질적인 차원의 연결 내지는 합일로 규정한다면 이 정의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여러 종교적 모자이크화와는 상통하지 않는 개념이다.

4)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1832-1910(서울:연세대출판사,1974),p.176

5) 민경배, op. cit., p.120.

6) 샤를르 단네, 한국 천주교회사, 안음 렬역(서울:분도출판사,1979),p.212

한국에서의 불교는 너무나 신비주의에 흠러 한국인의 정신에 소외되었던 반면 유교는 신비주의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를 배놓았기 때문에 종교적 갈망에 손을 뻗치는 한국인의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종교의 부재현상과 함께 국내외의 혼란이 여기에 곁들여 있었다.

준비없는 미약한 국력의 한국은 개국과 함께 밀어 닦치는 외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세력의 난무에 한국인은 초점없는 눈길로 반응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망망한 새정세의 전개에 기댈곳 없는 서러움을 안은 뜻한 모습이 프토타스탄트가 선교되기 직전의 우리나라 실정이었다.

c.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

피선교교회이건, 혹은 역사가 길은 유럽의 교회이들간에 어떤 교회의 신학과 신앙은 맨 처음 신앙의 씨를 부린 사람들에게 의해 결정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다.

1. 초기 선교사들의 내한

개신교의 한국 전개는 각기 다른 두가지 형태를 띠고 전개되었는데, 곧 서구형의 선교와의 미국형의선교이다. 7)

서구형의 신교교회는 교파형의 미국교회와는 달리 국가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있어서 교회의 유기적인 연결과 결속면이 강조되고 따라서 공동체의 신학과 교회론적인 신앙의 의식이 훨씬 강했다.8)

7) 민경배, *op. cit.*, p.106.

8) H.R.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ism* (Lir-ing Age Books, cleveland, 1962), pp.135-164.

그러나 이들 서구 신교교회들은 한국 선교를 시도했으나 그것은 단순히 접촉에 지나지 않았으며, 영속적인 선교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9)

한국 선교를 시도했던 또 하나의 유형은 미국의 교파단위적 선교였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들에 의해 복음을 받았으며, 이 결과 이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미국의 교파단위적인 선교가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한국의 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교회가 1880년대 이후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1880년대 미국 신학과 교회의식이 한국에 이식된 것을 의미하며, 오늘의 한국교회의 신학을 미국교회의 그것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0) 특히 한국장로교회를 형성한 선교부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등 4종류의 장로교의 선교부이다.11)

(1) 미국의 북장로교

1884년 알렌의사가 내한하여 의료선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장로교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9) 민경배, op. cit., p.106.

10) 이상규,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의 기원과 형성(1884-1945)", 이데올로기비판제2집 (부산:고신대출판부, 1985), p. 147.

11) 초기 각교파 선교사들의 입국연대는 대략 다음과 같다.

1884, 미국북장로교 H.G.Allen :1885, 미국북장로교: H.G.Underwood.

1885, 미국북감리회 H.G. Appen Jeller :1889, 호주장로회 J.Henry David 남매

1889, 호주장로교회 (The Peesbyterian Church of victoria) J. Henry Davis.

1889, 캐나다장로교회 Hardie: 1890, 영국 성공회 C. John corfe.

1887, 캐나다 YMCA J.S.Gale : 1889, 캐나다침례교 !M.C.Fenwick.

동년 6월에 내한한 헤론의사 (Dr. John Heron)가 비로소 북장로교 한국 선교사가 조직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의료, 교육 사업을 통한 선교 사업이 계속되었다.

그후에 마포삼열 (Rev. S.A. Moffe, 1890), 백위량 (Rev, W.M. Baird, 1891), 소안론 (Rev, W.L. Swallen 1892), 이길함 (Rev. Grahen Lee, 1892) 목사등이 내한하여 평양에 선교부를 개설하고 관서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2) 미국 남장로교

남 장로교의 한국 선교는 북장로교보다 8년 늦게 시작되었다. 언더우드가 첫 안식년으로 귀국하여 내시빌에서 모인 외국선교를 위한 신학교협의회 (Inter-Sominary Alliance for foreign Mission) 연차대회에서 한국 선교를 호소하였다. 이때 매모릭신학교 학생이었던 테이트 (Lewis Boyed Tate)와 릿치 몬드의 유니온신학교 출신인 정킨 (william M. Junkin) 레이놀드 (Willian D. Reynlds)가 선교사로 임명받고 1892년 내한했던 것이 남장로교의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3) 호주 장로교

1889년 10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 선교사 데이비스 목사 (Rev. Henry Davis)와 그의 누이 데이비스양 (Miss Merry T. Daris)이 내한하여 경상남도를 선교국구로 정하고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1892, 미국 남장로교 Reynold 의 6명 : 1893, 캐나다 장교회 W.J. Makenzie.

1895, 미국 남감리회 C.F.Reid : 1904, 안식교

1907, 미국 동양선교회(성결교) : 1909, 영국구세군 Hogga 201 -

그후 데이비스목사는 선교 여행중 병을 얻어 1890년 J. S. 게일 (Gale) 집에서 별세하였는데 그의 죽음은 호주교회에 한국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1891년 부터 호주 선교부는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사업에 착수했다.

(4) 캐나다 선교부

캐나다인으로 처음에 한국에 온 선교사는 맥켄지 (Willim John Mckenzie)였다. 그는 1893년 12월 독립 선교사로 내한했다가 1895년 여름 서거함으로 캐나다교회에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1898년 구례선박사 (Dr. Mrs. Rodert G. Grieson), 부두일 (Rev. Mrs. W.R. Foote), 마구 례목사 (Rev. D.M. McCroe) 등이 내한 하였다. 이들은 함경도를 중심한 선교를 시작했고 원산, 함흥 등에 본부를 두고 선교 사업을 전개했다.

이상의 미국형 교파 선교 형태를 본 이들은 순수한 형태의 복음주의적이고, 부흥회 타입의 교리이고 경건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

초기 선교사들은 한마디로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으며, 12) 저들의 신학적 입장은 웨스터 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는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인물이었다.

12) Harvie M. Conn., *Stuaic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 prestyterian Church, Part I.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xix, no. 1(1966.Nov.) p.26.*

미국 장로교 외지선교부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의 총무였던 브라운(A.J.Brown)은 1911년 이전의 주한 선교사들의 신학적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개국 이후 첫 25년간 내한한 선교사는 전형적인 퓨리한형 선교사였다.

이들은 18세기전 그들의 조상들이 뉴잉글랜드에서 처럼 안식일을 지켰으며, 술이나 담배, 그리고 카드놀이와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빠져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신학과 성경비평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히 보수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했고 저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했다." 13)

이렇듯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보수적이며, 칼빈주의적인 교회로 특징을 이루면서 세계 어디서나 유래를 볼 수 없는 골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한국교회의 초기 신학적 견해는 "철저한 근본주의", "정통적 복음주의", 혹은 "경건주의적 복음주의"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됐지만 강경한 보수주의적 이었음은 틀림없다. 14)

미국 북장로교의 연대보고서 (The Annual Report, 1972)는 주한 선교사들의 교육적 배경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시하는데 곧, 1893년에서 1901년까지 한국에 있던 40명의 선교사중에서 프리스톤신학교 출신이 16명, MC Cormic 신학교 출신이 4명 그리고 뉴욕의 Union 출신이 3명, 그외는 무디 성경학교와 뉴욕의 Biblical Seminary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15) 여기서 프리스톤신학교와 맥코믹신학교는 미국북장로교의 직영 신학교로서 찰스 하지 (charles Hodge)박사의 아들 A. A. 하지와 워필드 (B. B. Warfield)박사의 제자들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나온 거의

13) Ibid., pp.26, 27

14) Ibid., p.27.

대부분의 초기 선교사들은 칼빈주의적 보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다. 16)

이런 신학적 보수주의로 특색지어진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지식을 강조했으며 자유신학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큰 축복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강조와 더불어 어떤 약점이 나타났다. 그 하나는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 가운데 분명한 칼빈주의적 강조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17) 대다수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고수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1910년까지 감리교와의 연합 가능성이 있었던 까닭에 이것은 개인적 선교의 문제 그 이상이었다.18)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에는 삶에 대한 일종의 이원론 (dualism)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경은 단지 종교적 권위만 가질 뿐이며 (구원의 방법), 말해주는 철학, 정치, 예술, 교육의 세속적 문제에 있어서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여러방면에서 훌륭한 전통을 수립했지만, 그들은 한국교회에 기독교적 문화참여에 대해서는 바른 칼빈주의적 견해를 심지 못하고, 19) 오히려 경건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분리와 은둔의 자세를 가르친 것이다.

D. 독노회 신조에 나타난 신학적 배경

한국교회의 신학 특히 초기 신학을 규명하는 데는, 한국 장로교의 최초의 기구적조직이라 할 수 있는 독노회때 채택된 신조가 어떠한가는 살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신조란 교회의 표준이요 신학의 좌표이기 때문이다.

16) 이상규, Op. cit., p. 46.

17) J.M. Botteau, op. cit., p.9.

18) Ibid. 19) Ibid., p.10.

장로교의 제도에 준하는 조직적인 한국장로교회의 형성은 1893년 장로교 선교 공의회가 조직되므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 1902년에도 최초로 한국인 신자가 장로교 최고 기관에 참석한 장로회 공의회가 조직되었다.²⁰⁾ 1906년까지는 선교 공의회는 장로교 공의회와 병행하여 지속되다가 한국 목사의 인수문제로 1907년 9월 17일 평양의 장대한교회에서 최초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 (독노회)가 조직된 것이다. 이날 한국인 장로 36명, 4선교부 선교사 33명, 찬성회원 9명 등 78명의 회원으로 개최된 장로회 공의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창설됨을 선포하므로 우리에게 최초로 교회적 장로교회의 기구가 형성된 것이다.

이날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을 목사로 정립 하였다.

독노회가 조직된 후 선교 공의회는 영문공식 명칭을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로 개칭하고 노회 성립후에도 계속 이어져 노회에서 관찰하지 않는 교회문제를 토의토록 했다.²¹⁾

독노회 조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장로회 신경 (Confession of faith)의 채택 이었다. 이때에 채택한 12개 신조는 1902년 선교사회의에서 선정한 신경 준비위원들이 3년간 각국 신앙고백서를 수집, 비교, 연구중에 1905년 인도교회에서 새로 채택한 신경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시아 각국 장로교회의 공동 신경이길 염원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채택한 것이다.²²⁾

20) 김양선, 한국교회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3, p. 98 .

21) 광안전, 한국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p. 102

22) 이고백의 전문은 Harvie M.Conn, op.cit., pp, 31-33에 실려있다.

이 신조의 내용은 성경무오,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죄의 대속과 성령, 성례전, 불가항력적 은혜, 부활과 심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칼빈주의적 신학을 표명하고 있다.23)

백낙준 박사는 이 신조가 개혁주의 교리를 아주 잘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신앙고백 자체는 칼빈주의 영향이 강하게 표시된 12조의 신조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2개 신조의 채택과 함께 웨스터 민스터 소요거문답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도 채택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신조에 나타난 신학형태가 근본주의적인 성격과 복음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이 신조는 역사적 칼빈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한국 교회의 신학의 호전성을 말할 수 없이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칼빈주의의 모든 부분이 다 강조되지 아니했음도 주목해 보아야한다. 특별히 문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장로교 신학교 (평양)의 신학적 배경

초기 한국교회 신학은 평양의 신학교와의 관련에 논구 될 수 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신학교육은 1890년 가을부터 "신학반" (Theological class)이란 이름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마포삼열이 1982년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25)이 때

23) 김양선, op.cit., p.98. 24) 민경배, op.cit., p.226

25) 채필조편, op.cit., p.115.

의 교육기간은 1개월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신학번의 출발동기는 중국 산둥선의 주재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네비우스 (J.Nevius)의 한국 방문과 관련이 있는데 그가 1890년 봄에 서울에 도착하여 2주간 특별집회를 인도하면서 몇가지 선교원리를 제창했었다.

그것이 소위 네비우스 방법 (Nevius Method)인데 그 핵심을 원리 곧 자치 (Self Government), 자금 (Self Support)자 주전도 (Self-Propaganda)였으므로, 한국교인중에서 교역자를 양성 하는 일을 필연적으로 실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교사 공의회는 신학교 설립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1901년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란 이름으로 정식 개교했다.

이 학교는 처음 미국 북장로교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1906년에 비로소 남장교, 호주장로교 선교부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수단의 일원으로 봉사케 했다.26)

즉, 평양신학교는 미국 남,북장로교회와 호주장로교회가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이때 교수들은 대강 다음과 같다.

et)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신학박사 마표삼얼목사(Samuel A. Moffet)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신학박사 이길삼목사 (Graham Lee)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신학박사 언더우드목사(H. Underwood)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신학박사 소안호목사 (W.L.Swallen)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신학박사 배외량목사(W.B. Baird)

26) 김득용, "해방후 한국 각교파 신학교육의 역사의고찰" 신학지만

45권 3.4집 .p.241 .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문학박사 편하설목사 (C.F. Bernheisel)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문학박사 곡안련목사 (A.D.C. Clarla)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신학박사 한위령목사 (W.B. Hunt)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신학박사 이눌서목사 (W.D.Reynold)

호주 장로교 선교사 문학박사 왕길지목사 (J. Engel)

그리고 이때 교장 마포삼열이었다.

이 학교는 철저하게 선교사들의 영향하에 있었고, 미국 프리스폰신학교의 찰스 하지 부자와 워필드의 신학등을 그때로 이식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평양신학교 신학은 프리스폰신학교 (Princeton Theologica Seminary)와의 관계에서 논의 될 수 있다.

1812년 창설때 부터 1929년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수단이 개편되기 전까지의 신학을 구프거스톤신학 (Old Princeton Theology)이라 호칭하는데, 프리스톤 신학교는 평양신학의 교수들과 한국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이 된 신학교이며 구프리스톤 신학을 형형한 학자들의 학설이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되고 소개된 점에서 한국 장로교 신학의 원류가 된다고 하겠다.

프리스톤 신학교의 제1대 조직신학 교수였던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 알렉산더 (Archibald Alexander ,1772-1851)로부터 밀러 (Samuel Miller ,1767-1850) 같은 교수들이 개혁주의 신학의 기반을 닦고 찰스 하지 (Chorles Hoelge ,1797-1878), 에이에이 하지 (A.A. Hodge ,1823-1886) 그리고 워필드 (B.B. Warfield ,1851-1921) 메첸 (J. Gresham Maehen ,1881-1937) 등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프거스톤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었고, 이들의 신학이 한국선교의 신학이 되었다.

한국에 온 대부분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들의 신학적 영향하에서 신학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설립된 평양신학교의 신학에 대해 배위량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성경, 그것이 강조되고 연구되는 교과서였다. 이 신학교는 주로 선교사 교수에 의해 모든 교역자에 영향을 끼쳤으며 점차로 총회의 지배하로 이행되는 것이었다. 역사적 칼빈주의 배경을 갖고 웨스터민스터 표준서들과 장로교정치조례를 갖고 있는 장로교는 전과 다름없이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기초위에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된 복음내용과 이에 대한 바울의 초자연적 해석을 가르쳤다." (27)

평양신학교 교장 마포삼열박사는 설교하기를, "근대에 있어서 흔히 새복음을 전하려는 자는 누구며 그 결과를 무엇일까 조심하십시오. 조선 모든 선교사가 다 죽고, 다 간다 할지라도 형제여, 조선교회 형제여! 40년전에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십시오." (28) 라고 하였다.

그리고 Reynold 는 1896년 5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평양신학교의 교육이념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와 사실을 철저히 통달하게 할것" (29) 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때 신학교육이 얼마나 보수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점은 평양신학교 1931년도 요람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27)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Korean Mission of the U.S.A. Presbyterian Church (6월 30일 - 7월 3일, 1934), p. 187.

28) 김양선, op.cit., p. 191.

29) 백낙준, op.cit., p. 226.

"본 신학교의 목적은 성경을 참으로 믿고 정당히 이해하며 성심으로 사랑하고 명확히 해석하며 또 성경가운데 표현된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또 단순하게 열심히 전파하기를 노력하는 복음의 사역자를 양성하기로함" 이라고 하였다.

평양신학교를 주도한 대표적 선교사는 마포삼열 (Samuel A. Moffet), 곽안련 (Charles A. Clark), 이눌서 (william D. Reynolds) 박사들을 들수 있다. 30)

마포삼열 (1864-1739)박사는 1890년 내한하여 신학교 설립시부터 1924년까지 교장을 역임한 평양신학교의 설립자이자 조직자이다. 그는 저술을 남기지 않았으나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그의 신학은 분명히 보수주의였으며 칼빈주의였다. 그는 회년기념예배 석상에서 "내가 한때 처음 왔을때 복음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었다. 그것은 십자가의도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만일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결심하였다. "는 말속에 그의 신학사상을 함축하고 있다.31)

곽안련 (1876-1961) 박사는 한국교회 신학형성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선교사이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인 그는 1908년부터 교수하기 시작했으며 1922년부터는 전임교수로 봉작했다.

그는 많은 저술을 통해32)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설교학 목회학 등은 아직도 신학교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신학적 맥락에서 볼 때 근본주의 자로써33) 1918년 창간된 이후

30) 그후의 평양신학교 교수진

북장로교 : 마포삼열, 이길함, 곽안련, 배위량, 이도만, 소아론

남장로교 : 이눌서, 구예인, 배유지.

호주장로교 : 왕길지. 캐나다장로교 : 부두일, 엄마력.

31)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서울:총회교육부", 1956),p. 173.

신학교 교수 내용을 반영했던 '신학지남'의 오랜 편집인이자 필자로써 장로교신학에 철저한 보수 신학을 대변해 왔던 것이다.

이 논문 박사학위는 남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로서 1892년 임명받고 내한하여 45년간 한국에서 일 했는데, 그는 순회 선교사로서, 성경 번역가로서, 그리고 신학교 조직신학교교수로서(1924년부터 1937년 은퇴 시까지)봉직했다. 그는 1920년 '신학지남' (제3권1집,통권9호)에 쓴 글 "신학변증론 :세세토록 참조하는 총"에서 성경이 영감으로 이뤄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조직신학교교수로서 그는 중국인 (Chia Yu Ming)의 저서 Evidence of christianity 를 중심으로 34)하저부자(C.Hoolge,A.A.Hodge)의 신학을 가르친바 초기 한국 장로교에 보수주의 신학적 성경관을 확립시켜 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은 철저한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설립하고 가르치는 평양의 장로교신학교에 전수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커리큘럼이다. 적은 시간에 너무 많은 교과목으로 각 분야에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구약해석, 신약해석, 조직신학, 변증학, 교회사, 설교학, 목회학등 주로 성경중심이 되어 응용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학문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복음을 사회와 문화에 적용하는 능력이 결여 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32) 그의 저서는 한국어 저술 50권과 영문 6권이다.

33)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33권 4집 (1966, 12), P. 34.

35)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양신학교의 교육은 교역자 양성을 위한 성경학교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볼때 초기 선교사들의 문화에 대한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비록 초기 평양신학교 선교사들이 칼빈주의적인 전통을 철저하게 고수 했지만, 복음의 사회적 적용 즉, 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음을 보여 준다.

34) 이 책은 1931년 한국어로 번역 출간됨. 이영태 역, 이늘서 감수

35) 전호진,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교회와 종교개혁
(서울 : 엠마오, 1986), P . 72.

I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먼저 칼빈주의 문화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칼빈주의 문화관은 결코 문화에 대하여 은둔적이거나 혹은 동화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안에서 문화를 변혁시켜가는 것이다. 본인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 변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에 변혁과 침투의 태도가 성경적임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그는 그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모든 문화를 비추이고 그것들을 변혁시키기를 열망하신다.

칼빈주의신학의 포괄적인 면이 문화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칼빈주의 문화관의 입장에서 한국교회 더 좁혀서 보수 장로교회를 살펴보았다.

역사적인 칼빈주의 전통을 전수하였음을 자부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과연 문화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조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칼빈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바른 신학을 견지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축복스런 사실이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이제 뒤돌아 볼 때 여러가지 반성할 요소들을 발견한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바로 문화에 대한 신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신학형태를 '칼빈주의'란 용어보다 오히려 '복음주의' '경건주의' 혹은 '보수주의'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용어들은 다른 모든 부분보다 문화에 대한 태도면에서 그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한국교회의 신학형태를 이루게 한 요인으로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형태와 독노회신조에 나타난 신학형태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신학형태들을 들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선교사들의 신학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신학형태는 넓은의미에서 보수주의였고 이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 신앙노선을 걷게 되었다.

한국에 선교원 보수주의 신학은 또 다른 면에서 경건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이었다. 이것은 그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 두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좀더 밀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찌면 한국교회는 칼빈주의 신학보다 오히려 미국 감리교 계통의 신학을 더 많이 흡수하였으며 지금도 그 영향하에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런점은 한국교회에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볼 때 확연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신학은 보수주의신학 혹은 복음주의 신학에 칼빈주의 신학을 상당히 가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칼빈주의 신학형태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비함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 초기 선교정책에 나타난 신학형태와 그후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부흥운동 그리고 그 시대의 신학을 대변하는 설교형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 아쉬운 것은 개혁주의 노선의 선봉에서 한국에 칼빈주의신학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신 교단에 대해 연구해 보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한국교회는 많은 숙제를 안고 기독교 2세기를 향해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등을 돌려서는 안되며, 또한 한국문화를 그대

로 수용하려고 해서도 안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을 한국문화와 사회를 변혁시키고 침투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1. 권학백, "한국 장로교 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33권 4권, 1966, 12
2. 곽안전,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3. 김득용, "해방후 한국 각교파 신학교육의 역사적 고찰" 신학지남 45권 3,4, 집
4.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3
5.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10년사, 서울: 총회교육부, 1956
6. 민경백,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7.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8. 변종길, 성경적 문화관과 우리의 태도", 교회문제 연구소 제4집, 부산: 고신대출판부, 1985.
9.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부, 1974.
10. 안영복, 구약요람, 서울: 성공문화사, 1980
11.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고신대출판부, 1976
12. 이근삼외,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 서울: 엠마오, 1986.
13. 이상규,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의 기원과 형성", 이데올로기 비판제2집, 부산: 고신대출판부 1985.
14. 이상규 련저,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 경기도: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15. 전호진,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교회와 종교개혁, 서울: 엠마오, 1986.
16. 학도례, 종교와 문화와의 관계, 경기도: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4.
17. 황영철,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전" 복음과 지성 83. 3, 1983.

18. Barclay O.R.,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한국 기독교 학생회역, 서울 : 한국 기독교 학생회, 1936.
19. Battean J. M., 기독교와 문화, 서울 : 한국 기독교 학생회 1982.
20. Barinck J. H., The Church Between the Temple and the Mosque, Grand Rapids Mich., E Eerdmans no date
21. Calhorn A.W., The culturel Concept of Christianity Grand Ropids : Eerdmans, 1950.
22. Gaillict, The christian Approach to culture, Nashville : Abirgdon Cokesbury, 1953
23. Conn Harrie M.,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 Presbyterian Church", Part I,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xin 1966.
24. Dawson Henry C, The Historic Reality of christian culture, New York : Harper, 1960.
25. Elot I.S., Notes Toward the Definition of culture New York : Harcourt, brace, 1949.
26. Eliot T.S., Christianity and Culture, New York: Harcourt Brace 1949.
- 27 Estep W.R., The Anabaptist Story Grand Rapids : Eerdmans 1975.
28. Kistemaker S., 칼빈주의, 김정호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6.

29. Murrey J.,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서울 :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5.
30. Nee F. N., 문화의 성장과정, 최광석역, 서울 : 한국 개혁주의
신학총회, 1980.
31. Niebuhr H.R., 그리스도 문화, 김재준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